내 손 안에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GPM
GOSPEL & PRAYER MEDIA
왕하 2:21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 Gospel Prayer Newspaper | 2022. 10. 9 ~ 2022. 10. 29 제272호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허용 판결로 혼란 예상

대구 북구청의 대현동 신축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명령건에 대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사원 건축을 허가해 앞으로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북구청장의 상고를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해 이슬람측 A씨 등 8명의 승소를 확정지었기 때문이다.

앞서 대구 북구청은 2020년 9월, 주택 밀집 지역인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모스크)의 건축을 허가했지만, 주민들의 민원으로 2021년 2월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고, 무슬림 건축주가 이에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그해 7월, 이슬람 신자들이 본안 소송과 함께 낸 공사 중지 처분 집행 정지를 받아들였고, 이후 북구청은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에 따라 2심을 포기했다. 그러나 피고측 소송 보조참가인인 대현동 지역 주민들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재판을 이어갔고, 2심에서도 판결은 같았다. 이후 북구청측은 무슬림 건축주측에 제3의 부지 물색을 제안하고, 해당 부지를 사들여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진척되지 않다가 '건축 허가'라는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그러나 대현동 주민들이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데는 심각한 이유가 있다.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 김정애 부위원장은 앞서 "하루에만 5번 기도를 위한 전용 처소인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며, 이곳에 160여 명으로 추산되는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이 매일 몰려든다면, 주택 밀집 지역이라 소음 때문에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 무슬림 70~80여 명은 라마단 기간에 대현동의 한 가정주택에 모여 밤새도록 먹고 말하며 소리쳐 매우 힘들었다."며 "그럼에도 타지에서 온 무슬림 유학생들이 외로울까봐 자기들 위로받겠다며 진행해온 종교의식을 참아주고 배려해줬는데도, 유학생들은 주민 배려를 이용해 사원을 더 크게 짓겠다며 더욱 참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이번 이슬람 사원 건축 허용의 가장 큰 문제는 무슬림들의 삶의 양식을 한국에 뿌리내리는 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유럽의 경우, 무슬림들이 정착하면서 이민, 다산, 현지인과의 결혼, 개종 등을 통해 급속도로 세를 불려나가 지역을 장악하고, 국가의 법이 아닌 자신들의 법 체계인 샤리아 법으로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다. 2013년 당시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은 약 13만 5000명에 달했고, 2018년 한국 이슬람교중앙회는 국내에 있는 무슬림 인구를 약 26만 명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무슬림 역시 전도의 대상임을 기억하고 무슬림 증가 문제에 대한 선교적 전략을 연구하고 기도해 앞으로의 무슬림 선교를 대비할 필요도 있다. 이 땅에 온 무슬림 이주민들에게 교회가 적극적,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자.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Interview

염평안 대표(히스킹덤뮤직)

"자녀를 잃고 다시 주신 **자녀** 때문에 **요게벳의 노래**가 만들어졌어요"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노래하는 염평안 형제를 만났다. 어느날 자녀를 잃은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나눠주셨다. 그런 마음을 노래에 담았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랫말로 기쁨과 슬픔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 어느덧 찬양 사역자의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됐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56)

진리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죄인의 운명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셨기에, 이제는 죄인 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6장은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이 진리가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 있는 실제가 되려면 '여기라(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드리라(헌신)' '계속 신뢰하라(주님을)'는 결단의 요소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어서, 이제 죄가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도록 생각 속에서도 지워버리고, 습관과 중독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농락하려는 것도 단호히 잘라버려서 어떤 흔적도, 어떤 중간지대도 남겨놓지 말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명과 존재와 시간과 나의 모든 꿈,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고 그 사실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되는 도전과 유혹 앞에서도 100퍼센트 믿음으로 동일한 원리로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전에도 동일하게 병든 자아를 지독하게 섬기며 살아왔다고 지적합니다. 병든 자아를 바로 '나'로 여기고, 그 병든 자아가 원하는 바에 계속 나를 '드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할지 결정하는 순간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니, 이제는 오직 나의 새 사람을 창조하신 주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듣고도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이제 재미는 다 끝났네.'라는 약간 슬픈 감정과, '그래도 나는 다시 죄를 짓고 말거야.'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여지를 남겨두면 절대 안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23) [GNPNEWS]

일러스트=김경선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전화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1670-3160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포토뉴스

파키스탄 교회, 홍수 이재민에 구호식량 전달… 복음과 함께 소망을 전하다

▲ 현지 교회를 통해 구호물품을 받는 파키스탄 이재민들. 제공: 백우현 선교사

최악의 몬순 우기를 보내고 있는 파키스탄에서 홍수로 사망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 이번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고 가옥 174만 채 이상이 부서졌으며, 66만 명이 임시 구호 시설에 머무는 등 인구의 약 15%가 수해를 입은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국가적 부도 위기 가운데 이번 홍수까지 겹쳐 일상이 무너져내린 파키스탄 영혼들에게 키프로 공동체가 기도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구호에 나섰다. 구호식량키트 안에는 5~6인 가정 기준으로 한 달 최소한의 식료품이 들어있다. 무슬림, 힌두, 기독교인 등 종교와 관계없이 어려움에 처한 극빈곤층 80가정에게 먼저 구호식량을 나누었다. 나누기 전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과 집 터전을 잃은 영혼들이 이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시 11:3~4)

[GNPNEWS]

中, 예수를 '죄인'으로 표기한 공산주의 성경 등장… 사회주의 가치 추가, 비사회주의 용어 삭제

Jesus once said to the angry crowd who was trying to stone a woman who had sinned, "He who is without sin among you, let him cast a stone at her." When his words came to their ears, they stopped moving forward. When everyone went out, Jesus stoned the woman himself, and said, "I am also a sinner."

▲ 중국에서 개정된 성경. 출처: The Voice of the Martyrs – USA 페이스북 캡처

중국 공산당이 공산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성경을 다시 쓰는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경과 복음 진리에 대한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CBN뉴스가 최근 전했다.

박해감시단체 순교자의 소리(VOM) 대변인 토드 네틀턴(Todd Nettleton)은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2019년에 발표한 프로젝트"라면서 "이 새 번역은… 진심으로 공산당을 지지할 것"이라며 "개정된 내용에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가 추가되고 사회주의 신념을 반영하지 않는 구절들은 삭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0년 9월에 출간된 고등학생용 교과서에는 개정된 요한복음 8장의 구절을 포함시켰다. 원래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나온 용서에 관한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그들 앞으로 끌고 와서 공연히 비난하며 예수께 도전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우리에게 이런 여자들에게는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성경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 "이 질문을 함정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런데도 예수는 그의 손가락으로 땅에 쓰기 시작하셨고 (그가 무엇이라고 쓰고 계셨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후에 완전히 바꿔 놓는 몇 마디 말씀을 하셨다(7절): "너희 중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의 말씀에 마음이 흔들려) 자리를 떠난 후, 예수와 여자가 함께 서 있었다.

예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 "주여, 없나이다."

예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개정판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해 성경적 진리를 대놓고 거스르면서 "모두가 자리를 떠나자, 예수가 직접 그 여자를 돌로 치며 '나 또한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기술했다.

네틀턴은 중국 공산당이 복음을 애써 깎아내리고자 이런 성가신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통제' 때문이라며, "기독교 메시지가 공산당으로부터 통제권을 빼앗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목표는 시민들이 일어나서 사랑의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예수를 섬기기 위한 방법을 숙고하는 대신 중국 국민이 매일 일어나서 "오늘은 어떻게 당에 봉사할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좋은 공산당원이 될 수 있을까?"를 묻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VOM은 중국에 성경을 전달하는 사역을 하면서 중국 시민들이 사회주의 새 번역본을 원래 성경과 비교하고 변경된 부분을 간파하기를 바라고 있다.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인도 카르나타카 주, '개종방지법' 통과… 기독교 박해 구실로 이용

인도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면서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카르나타카 주에서도 '개종방지법'이 통과됐다고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개종방지법은 여러 다른 주에서도 기독교인 폭력의 구실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어디든 '신성모독'이라는 혐의를 씌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재판도 없이 그 자리에서 폭도들에게 매 맞고 화형까지 당하게 만드는 이 악법을 철폐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며 구원이십니다. 그러나 박해를 당할수록 교회 안에 원수를 향한 사랑을 불 붙듯 일으켜주시고, 기도로 박해를 이겨내며,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도록 도와주십시오.

러, 군 동원령… 징집 피해 탈출 행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30만 명을 대상으로 부분적 동원령을 실시한 이후 국외 탈출 행렬이 이어지자, 당국이 징집 대상 연령인 18~27세 남성의 출국을 금지할 전망이라고 러시아 독립 언론 '메두사'를 인용, 지난달 26일 뉴스1이 전했다. 동원령 발표 직후 러시아 수십 개 도시에서는 반대 시위로 2000명 이상이 체포됐으며, 인접국으로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노인과 환자, 장애인, 죄수들까지 징집하며 전쟁을 지속하려는 러시아의 행악을 멈춰주십시오. 십자가로 화평케 하신 복음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선포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죄와 사탄의 역사를 끝내셨음을 선포합니다.

韓, 학생 마약사범 3년 만에 2.5배 급증

우리나라 전체 마약사범이 3년 새 약 1.3배 증가한 동안 학생 마약사범은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2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찰청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 마약사범은 2018년 140명에서 2021년 346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벌써 총 255명이 검거됐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급속하게 마약이 퍼지고 있는 한국에 은혜를 베풀어주십시오. 죄를 가벼이 여기고 향락과 중독에 자신을 내어주는 청년세대들을 복음으로 깨워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려 성결하고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2년 10월 10일 ~ 2022년 10월 29일

10월 10일 ~ 10월 15일 **10.10~14(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10.11(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10.12,14(10~12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10.14(10~14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10.14(13~16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10.15(09~18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그 외 7교회 진행중.

10월 17일 ~ 10월 22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10.17~19(05~24시)** ▶인천 계양 / 효성동교회(조**)010-2632-7457, **10.17~21(10~17시)** ▶강원 속초 / 동명교회(김**)010-7423-4953, **10.20(0~24시)** ▶경기 파주 / 갈릴리교회(이**)010-3869-3417, **10.20(18시)~21(18시)** ▶대전 서구 / 광야아둘람공동체(정**)010-3697-0641, **10.20(18시)~22(18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10.21(10~16시)** ▶미주 샌프란시스코 / 조이플교회(최**)415-730-0284, **10.22(09~21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그 외 11교회 진행중.

10월 24일 ~ 10월 29일 **10.24~28(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10.25,27~29(20~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10.27(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10.28(10~14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10.28(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10.29(0~24시)** ▶울산 북구/우정교회(박**)010-8308-4628, 그 외 6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현장 리포트

한국교회의 유대인 귀환 작전, 어떻게 볼 것인가?

▲ 인도 마니푸르 주에 거주하며 자칭 북이스라엘의 므낫세 지파의 후예라고 여기고 있는 인도인들. 출처: 유튜브 채널 AFP News Agency 캡처

인도 마니푸르에 자신들을 북왕국에 거주하던 므낫세 지파에 속하며 '브네이 므네세'라고 믿는 '쿠키(Kuki)' 종족의 후예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을 성경의 말씀대로 고토로 돌아가도록 돕는 '알리야 사역'에 한국교회가 적지 않은 규모의 재정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현지 기독교인들의 견해를 인도 선교사이자 본지 통신원 원정하 목사가 현장을 찾아가 들었다. 〈편집자〉

지난 2021년, 코로나로 전 인도가 고통받는 가운데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인도를 도왔다. 그러나 그중 적지 않은 규모의 재정이 인도의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인도의 유대인들을 돕는 데에 쓰였다는 지적이 있다.

인도에는 '브네이 므네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마니푸르' 주의 쿠키 종족에 속한 이들로서, 스스로를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절에 흩어진 '므낫세 지파'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늘 이스라엘에 가고 싶어한다. 이들의 소식을 들은 한국의 어느 기독교 단체는 2021년에 '므낫세 코뿔소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548명의 비행기 표값의 절반인 27만 6000달러를 지원해 '브네이 므네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보내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해당 단체는 지금도 이스라엘 내의 정착촌 사역 및 기타 국내 연결 사역으로 그들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다고 한다.

막대한 재정으로 알리야 운동 참여하는 한국교회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 디아스포라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활동을 '알리야(올라가다, 이스라엘로 이주하다)' 운동이라고 한다. 이 운동은 원래 이스라엘 정부가 주도하던 업무였다. 그런데 근래 들어 세계 곳곳의 기독교인들이 이 일을 자신의 '사역'으로 받아들이며 열심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련의 활동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그것은 혼동하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예언'과 '명령'의 차이이다. 선교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는 예언도 있지만,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도 있다. 이 경우, 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곧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교회가 유대인을 고토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이 성경에 있나? 이스라엘 정부의 입장에서 이 일은 국가를 강하게 하는 일이고,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사야서와 에스겔서, 로마서 등에서 언급된 '말세의 이스라엘의 회복' 및 '유대인들의 귀환' 예언을 이룬다는 의미가 있기에 공통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더욱이 이전 세기들에 유대인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박해에 대한 속죄의 의미가 된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성경에 '대환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은 있지만, 대환난을 일으키라는 명령은 없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말세에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는 예언되어 있지만, 교회가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려보내라는 일반 명령을 주신 적은 없다. 우리에게 전해진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 '복음대로 살라.'는 것뿐이다. 당장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했던 바울 사도 본인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라.'가 아니라 '이방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언과 명령은 다른 것이다. 교회는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예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다.

개인이 받은 특별한 감동으로 인해, 특별한 때에 이 일(알리야)에 참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교회를 향한 일반적인 소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동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게다가 만일 이러한 활동이 실제의 선교사역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겸허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한다는 잠정 결론이다. 이는 필자가 이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인터뷰를 갖고난 이후 소견이다.

예컨대, 어떤 비정부기구(NGO)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고통받는 공산당원을 북한으로 보낸다고 가정해보자. 또 이런 활동이 선교단체의 사역이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 이런 일에 교회의 헌금이 투입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 결과가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를 이스라엘로 보내는 데에 교회의 헌금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심각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이다. 그리고 기독교 선교가 아주 제한되는 곳이기도 하다. 게다가 '알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 가는 조건 중 하나는 유대교 신앙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선교활동의 최종 형태가 결국 유대교의 교세 확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유대교도 무슬림도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성경에서 신약을 무시하는 유대교나, 성경보다 코란을 더 우위에 둔 이슬람은 똑같이 비 진리라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은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리라는 의미의 선교적인 것이지, 세속 정부로서의 이스라엘의 강화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필자는 인도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며 사역을 해왔다. 그리고 마니푸르 주의 기독교가 매우 활발하다는 사실은 인도에서는 기본 상식에 속한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마니푸르 주의 기독교 복음화율은 51%이다. 주도 임팔을 중심으로 한 평야 지대의 '메이떼이'족은 아직도 복음화율이 아주 낮은 편이다. 주의 주변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마오', '빠오메이', '쿠키', '미조', '당굴', '친', '마르' 등의 소수 종족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이기에 주 전체 평균 복음화율이 간신히 50%를 넘기게 된 것이다. 특별히 스스로를 '브네이 므네세'라고 여기는 이들은 복음화율이 98.1%나 되는 쿠키 종족 출신이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필자는 쿠키 종족이 진짜 유대인인지, 그리고 혹시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정을 들여 후원하고 있는 알리야 운동이 자칫 기독교인을 돈과 이스라엘 시민권으로 유대교로 개종시키는데 오용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됐다. [GNPNEWS]

원정하 목사(본지 통신원)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가난한 기독교인들이 생존을 위해 유대교로 개종

▲ 원정하 목사가 현지 교단 감독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원정하 목사

필자는 지난 2022년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마니푸르' 주에서도 '브네이 므네세'의 중심지가 되는 '추라찬푸르' 지역을 다녀왔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옷을 입고 히브리어로 토라를 읽는 인도인들에 대한 현지 반응을 소개한다. 〈편집자〉

다음은 마니푸르 복음루터교단(Manipur Evangelical Lutheran Church)의 감독(Bishop)인 만룬(S.K. Manlun) 목사와의 인터뷰 요약이다.

- 지난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많은 재정을 투입해, 이 지역 유대교인들을 이스라엘로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쿠키 종족은 거의 100%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는가?

감독 : "마니푸르에는 기독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다. 그들은 여러 해 전부터 개종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도 계속 개종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개종한 연도에 따라 이스라엘로 보내진다. 일부는 이미 이스라엘로 보내졌고 일부는 이스라엘로 보내지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약 1만의 '브네이 므네세' 사람들이 있으며, 그중 4000여 명은 이미 이스라엘에 정착했고, 6500명은 아직도 인도에 있다."

- 마니푸르에 유대교 회당이 있나?

감독 : "오래 전에 세워졌는데,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지역의 여러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고 있다. 추라찬푸르 인근의 캉그라(Kangra) 지역의 쿠키 종족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오면, 이주한 지역의 추장에게서 땅을 빌려야 한다. 이때 유대교를 믿는 추장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땅을 주면서 소작료나 이용료를 깎아주며 정착을 지원하는 대신 유대교로 개종하게 만든다. 유대인으로 개종한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인도(마니푸르)에서 생계 수단이 없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며 그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다."

-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니푸르의 유대인들을 후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감독 : "우리는 한국인들이 마니푸르 유대교인들을 돕는 데에 거액의 돈을 쓴다고 시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재정을 집행한다면 세 가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 둘째, 복음을 전하는 데에 쓰여야 한다. 셋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마니푸르의 유대인을 돕는 것은 그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듯하다. 한국의 선교단체나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들의 기금이 사용될 장소와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모금한 기금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한다."

필자는 마니푸르 사람들의 입에서 한 번도 '브네이 므네세'라는 단어는 들어보지 못했고, 보통 '사바트 피플(안식일 지키는 이들)' 혹은 '주다이즘 피플(유대교 믿는 이들)'이라는 표현을 쓰곤 했다. 그들이 혈통적으로 '주이시(유대인)'나 '므낫세'라고 믿지 않기 때문인 듯하다.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노래하는 **염평안** 대표 (히스킹덤뮤직)

제공: 염평안 대표

• 1면에 이어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요게벳의 노래'로 알려진 작곡가이고, 히스킹덤뮤직 대표 염평안입니다."

- '요게벳의 노래'는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첫아이를 낳고 나서 둘째 아이를 유산했어요. 우리 부부가 엄청 슬퍼하고 힘든 시간을 지났는데,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돌아보시는구나 생각했어요. 임신 23주쯤 됐는데,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조산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지금 태어나면 살 수 있는 확률이 없었어요. 거기서 무너졌어요. 한 아이를 잃은 것도 힘들었는데 두 아이를 동시에 잃을 수 있다는 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렸어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5주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기가 제가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났던 시간인 것 같아요. 아무 일 없이 지나는 하루가 너무 소중했죠. 결국 29주에 아이들이 1.38kg, 1.41kg으로 태어났어요. 뇌출혈이 있었고, 한 아이는 폐가 안 좋았어요. 둘 다 한 달 반 동안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아이들이 태어난 것에 먼저 감사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아이들인데 잘 키워보자고 생각했어요."

"신생아 중환자실을 거친 아이를 보며 요게벳을 묵상했어요"

- 어려운 일을 겪으셨군요. 아이들의 건강은 회복이 됐나요?

"네. 아이들이 건강을 되찾아가니까 어떻게 잘 키워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녀 양육에 대한 책도 많이 보고 말씀도 많이 듣다가 하루는 '성경으로 아이 키우기'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거기서 요게벳이라는 인물을 만났어요. 요게벳의 입장으로 서술한 내용을 보게 됐어요.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러나 한 번도 부모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본 적이 없었는데, 아이를 잃고, 또 잃을 뻔 하고 나서야 아이를 떠나보내려고 역청과 진흙을 바르는 요게벳의 마음을 헤아려보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도 신생아 중환자실 앞에서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거든요. 요게벳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이를 떠나보내지 않았을까, 저도 요게벳의 마음이 동감이 되면서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좀 더 읽다가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부모가 언급되는 것을 봤어요. 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는 마음으로 곡을 쓰게 됐어요."

- 어려운 시간을 신앙으로 통과하셨는데,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있었어요. 중학생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했어요.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고비도 있었지만 신앙 안에서 크게 소용돌이치는 삶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평범하게 살았어요."

- 초등학생 때 복음을 만나신거군요. 아직 어리다고도 할 수 있는 나인데요. 그 신앙이 잘 이어졌나요?

▲ 공연하는 모습(좌)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제공: 염평안 대표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혼자 있었어요. 부모님은 뒤늦게 목회를 하겠다고 결정하시고 뉴질랜드에 공부하러 가셨거든요. 방황하고 싶어도 티를 낼 사람이 없기도 했고, 나름 힘든 시간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소소한 고비들을 잘 넘겨왔던 것 같아요. 가난했지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어요. 친구들이 다 가난했거든요. 어려운 생활 속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형편이 어려운 탓이었는지, 부모님이 어린 시절 저에게 교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계셨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치가 있다고 하시면서 권하셨는데, 저는 그저 우리 집 사정이 어려우니까 교사를 하라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안정적이잖아요. 그렇게 교원대학교에 들어가 졸업한 후에 교직에 16년 동안 있었어요."

부모님 권유로 교사로 16년 봉직

- 교사를 하셨군요. 보람이 있으셨나요?

"교사가 저와 잘 맞았어요. 큰 스트레스 없이 아이들과 잘 놀았어요. 승진에 대한 욕심도 없어 매우 편했어요. 교사가 되고 두 번째 해에 4학년 담임을 맡은 때였어요. 학기 초에 게시판을 꾸며야 했는데 미술에 소질이 없어서 아이들 사진을 찍어서 색지로 덧대고 꾸며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아이들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같이 하다가 교무실에 갔다 왔더니, 정말 아이들이 다 해놨어요. 그때 초등 4학년이 가위질을 못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아이들이 칭찬을 받고 싶은 눈망울로 저를 보고 있어서 일단 칭찬해주고 저는 밤 9시까지 가위질을 했어요. 그때 아이들에게 좋은 말로 격려해줬던 말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변변치 않았는데 내게 괜찮다고 해준 사람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셨겠구나.'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된 곡을 쓰기도 했어요. 그게 '아버지'라는 노래에요."

- 이렇게 영감을 받으시면 곡을 쓰시는군요. 곡을 언제부터 만드셨나요?

"중학교 때 처음 만들었어요. 습작처럼 곡을 쓰기 시작했다가 극동방송 경연대회에 나가려고 본격적으로 작곡을 하게 됐어요. 저는 작곡가가 되겠다거나 찬양 사역자 되겠다는 꿈은 없었어요. 제가 깨달았던 이야기들에 멜로디를 붙이면 노래가 된다는 게 즐거워서 일기 쓰듯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런 곡들은 교회에서 특송을 한번 하면 컴퓨터 속에 묻혔죠. 말씀을 듣거나 일상을 살다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으면 곡을 만들었어요. 곡들은 저와 관련된 가족, 아내, 아버지와 나누고 싶어서 만든 노래들이었기 때문에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할 필요도 없었죠. 누가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노래가 좋아야 된다는 압박이 없었어요. 그저 그렇게 노래를 만들면서 사는 게 좋았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300곡 정도 만들었어요."

- 그러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찬양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가족들의 반응도 궁금하네요.

"2020년까지는 교사를 했어요. 저는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자라서 우리 가족이 어렵게 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컸는데, 아내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찬양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2014년부터 찬양 사역의 기회가 있었어요. 앨범이 나오면서 노래를 들으시고 교회에서 불러주시기 시작했어요. 주중에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주말에는 공연하고 주일에는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4~5년을 생활했더니 삶에 여러 문제들이 생겼어요. 잠을 잘 못자니까 먼저는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삶이 바쁘다 보니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잘 섬기지 못하니까 미안했어요. 이렇게 계속 사는 건 아닌 거 같다고 생각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찬양 사역에 전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와 부모님이 지지해주셨어요. 그렇게 2019년에 결정을 하고 교장 선생님께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불안해서 잠을 못 잤어요. 우리 가족이 내가 어려웠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컸었죠. 게다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직서가 수리되는 주에 공연이 줄줄이 취소됐어요. 불안함이 극에 달했죠."

전임 찬양 사역자의 길을 선택하다

- 하필 그때 코로나가 터졌군요.

"본격적으로 음악 일을 하니까 집에 작업실을 만들었는데 정작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거기서 울고 기도했어요. 쉼을 가지면서 생각해보니까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아프고…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된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지금의 상황도 차분히 받아들였죠. 내 신앙이 이제 성장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때를 허락하셨구나. 여전히 불안하지만, 신앙적으로 근사한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도 잠깐, 불안이 또 찾아오기도 했어요."

-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이후에 진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일단 퇴직금 받은 것으로 카메라와 영상, 조명 장비들을 샀어요. 또 저와 같이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생기면서 여러 계획을 세웠죠.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에서 라이브 공연만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의 길이 열렸어요. 하루는 한 한인교회에서 저를 초대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집회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이후에 계속 영상을 제작해야 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불안함을 느낄 새도 없이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 온라인 사역을 열어주신 거군요. 역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네요.

"'요게벳의 노래'가 나오고 나서 찬양 사역의 기회가 많아졌어요. 매주 가니까 감사한데, 찬양을 만들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사춘기여서 말을 안 듣는데, '요게벳의 노래'는 계속 하나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주님께 맡긴다고 나눠야 했어요.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고백처럼 삶을 사는 건 다른 이야기여서, 집회를 하고 나면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기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가사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해요."

- 히스킹덤뮤직이라는 기획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음악을 하면서 만난 동료들 중에 대부분이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너무 좋은 친구들인데 생계 때문에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들과 오래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히스킹덤뮤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이들과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 말고 회사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기획사를 만들고 이들의 작업이나 활동하는 것들을 돕게 됐어요. 제 일은 뒷전이 됐지만, 좋은 결정이었던 거 같아요. 함께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제 것을 조금만 희생하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거든요."

- 많은 음악을 만들려면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해야 하고 묵상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곡을 만드세요?

"절반 정도는 말씀을 듣다가 쓰게 됐어요. 설교는 말씀을 씹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게 감동

• 5면에 계속

선교 통신

함께 놀고 시간을 보내기… 그 결과는 예수님 영접

우리 교회에 현재 초신자 2명과 비신자 3명이 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매 주일 예배 모임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가끔 말씀을 전하면서 '이 친구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를 할까? 심지어 무슨 마음으로 올까?' 생각도 듭니다. 헌신자를 세우기 위해 조급함 속에 여러 훈련도 해보지만 오히려 진리와 더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고민하다가 요즘은 함께 놀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시간 속에 최근 비신자 중에 1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K주에 반개종법이 시행되면서 전도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개종을 권유한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되고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는 교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이끌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임을 믿으며, 일로서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교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역이 아닌 가족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의 삶이 격려와 버팀목이 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동역자로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모이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공동체로서 더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삶을 책임져주며 하나님 말씀 아래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올해부터 저희에게 C지역에 선교를 허락하시면서 여러 마을들과 슬럼, 오지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성경책을 배포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사님들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예배 모임을 인도하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단편으로 된 복음서와 신구약 66권 성경책을 전달해주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기에 그 자체로 힘 있게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또한 방과후 교사들을 세우려 합니다. 미전도 지역들과 슬럼들을 방문하면서 발견한 것은 많은 아이들과 열악한 교육환경입니다. 방과후 교사들이 마을과 마을을 돌며 어린이들을 가르치면 그 마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후반기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 기도회에 참석한 목사님들 중 한 교회를 선정해 방과후 공부를 지도해주는 교사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I국 목사님들과 매달 느헤미야 기도회를 하며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I국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믿으며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통해 저와 목사님들이 다른 것을 의지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처음 저를 만났을 때 다른 금전적인 것을 기대했는데, 복음의 능력을 믿게 되면서, 이제는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고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 오후경

6월 중순에 2박 3일간 '다시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C지역 복음캠프를 진행했습니다. 19명의 I국 목사님들이 참여해 느헤미야 기도회와 복음집회를 가졌습니다. 목사님들이 복음 앞에 진지하게 서며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또 C지역의 교회들을 순회하며 예수 생명으로 함께 목회하자고 격려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주님의 일들을 위해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GNPNEWS]

I국=디모데 탁

• 4면에 이어 Interview

"주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해주실 줄 믿어요"

으로 왔을 때 인사이트가 되기도 해요. 이런 내용들을 새기고 싶어서 노래로 만들었어요. 말씀을 듣다가 노래의 어느 구절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을 완성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또한 삶의 어떤 순간, 생각이 머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곡을 써요. '낮은 곳으로' 같은 경우도 헤드폰을 주문하고서 만들게 된 곡이에요. 가지고 있던 헤드폰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음악 작업도 하니까 좋은 것을 하나 사고 싶어서 주문했어요.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었는데도, 주문하고서 마음이 찔렸어요. 좀 더 좋은 것을 찾고 편한 것을 찾는 내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미용실도 가장 저렴한데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좋은 미용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렵게 자랐으니까 어릴 때는 메이커 운동화 신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직장을 다니니까 이제 그런 것도 사게 되고, 삶의 기준이 올라가게 됐죠. 생일 때 좋은 식당 가야 되고, 나이가 더 드니까 안정되고 걱정 없는 노후를 생각하는 제가 예수님과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천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저는 높아지는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본 것이죠. 반성하는 마음으로 '낮은 곳으로' 가사를 쓰게 됐어요."

- 작곡의 배경을 들으니 너무 재밌네요. 그렇다면 혹시 남다르게 생각하는 곡이 있으신가요?

"알리고 싶은 곡이 있어요. '교회'라는 곡이에요. 저는 유평교회에서 대부분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곡은 6년 동안 만들었어요. 2008년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성도들도 많아지고 주님의 열정으로 교회가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보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도전이 됐어요. 당시 성도님들에게도 마음을 많이 뜨겁게 했던 말씀이었죠. 이 마음을 담은 노래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때 소리엘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가 나왔어요. 이것보다 좋은 게 안 나올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그러다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가사 한 줄을 써놨어요. 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말씀에 감동이 돼서 가사 한 줄을 또 써놨죠. 그러다 한번은 교회들의 안 좋은 뉴스들을 보게 됐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나도 교회인데 정작 나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았죠.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이고, 아름다운 교회이고, 성도들이 서로 깊이 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떠오른 가사들로 곡을 만들고, 미사여구 없이 '교회'라는 제목으로 2013년에 곡이 나오게 됐죠. 우리 교회에서 10년 정도 부르고 있는 노래인데, 마지막까지 부르고 싶은 노래에요."

- 찬양 사역을 꿈꾸는 다음세대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예배 반주를 하고 있다가 예배 인도 하던 형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갑자기 예배 인도를 맡게 됐어요. 그런데 예배 인도를 위해 기타 학원을 가게 됐어요. 마침 기타 학원 선생님이 찬양 사역을 하시던 분이었고, 그 분이 제 곡을 다른 분에게 소개시켜줬어요. 그렇게 저의 찬양 사역이 시작됐어요.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도 신앙 안에서 음악적으로 좋은 것들이 갖춰졌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무대 밖의 삶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을 때, 주님의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주실 줄 믿어요."

▲ '염평안 – HOME Part.1'(2021) 앨범.

-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제목을 말씀해주세요.

"먼저는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나일강이든, 어디든 보낼 수 있을텐데,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섬기고 싶어요. 또한 찬양 사역도 언젠가는 기능을 다하면 다른 역할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저를 교회로 부르셨고, 남편과 아버지로 부르셨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로 제게 맡겨주신 사명들에 충성하고 싶어요. 균형 있게 각 영역에서 지혜롭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GNPNEWS]

Y.K.

복음의 능력

강렬한 소원의 기도

기도의 뿌리는 '소원(desire)'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막 11:24,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소원하는'이 '구하는'으로 번역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좋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소원이라고 부른다. 소원에서 나오는 기도는 명료하고 구체적이다. 원하는 것에 온 마음을 쏟아 부으며 영혼을 불태우는 소원의 힘에 밀려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기도이다. 강렬한 소원이 영혼을 사로잡아 불태우면 영혼이 게을러질 수 없다. 소원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 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영적 소원이 죽어버렸다는 무서운 표시이다. 하나님을 찾는 소원이 약해져 기도의 골방을 찾지 않는 사람은 그분에게서 멀어진 것이다. [GNPNEWS]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E.M.바운즈)'에서 발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교회 (1)

절망의 때,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기회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소중한 시간들을 갖게 하신다. 인생들이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피했으면 하는 것이 바로 고난 내지는 절망이다. 생기를 전혀 느낄 수 없는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의 과정들을 맞이할 때가 있다. 다른 대안 없이 내가 주인인 인생,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시간이야말로 자신의 의지를 꺾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절망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때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소중한 기회가 된다.

한국교회는 여러 면으로 큰 축복과 성장 가운데 달려왔다. 그러나 지금은 자타가 공인할 만큼 교회 안팎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영적인 힘을 잃고 스스로를 걱정해야 하고, 외부적으로도 교회를 걱정해줘야 할 만큼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 자정할 수 있거나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갈 실력과 힘이 있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는가!! 그런데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보이질 않고 삶의 현장에 너무 많은 죄악으로 인한 부끄러운 우리의 실상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때이다.

그러나 역사상 절망의 때마다 따로 필요한 것은 없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초대교회 시절, 거대한 로마의 압제 아래서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양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다. 다른 이론이나 방법이나 다른 어떤 수단을 가지고도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없다. 하나님 만나면 된다. 교회는 화려한 이론과 숱하게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던 수많은 것에서 돌이켜,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참된 주인이시고 교회를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일러스트=이예원

하나님은 교회를 어떤 존재로,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이것이 아주 분명해야 한다. 교회는 죽은 전통이나 교권 세력에 의한 집단이 아니다. 인간 문명의 산물인 종교는 더욱 아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그 부르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생명 공동체이다. 진리가 생명 되어 나타난 사랑,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제 위기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멈춰 서서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가고 있는가! 바른 기초 위에 서 있는가!' 이걸 살펴보는 게 위기의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2018년 7월) 〈계속〉 [GNPNEWS]

> "진리가 생명 되어 나타난 사랑, 그것이 바로 교회다"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carmel
D / E / S / I / G / N
카르멜디자인
포스터_현수막_로고_홈페이지
idea를 design하다
"미자립교회, 선교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www.carmel.company
carmel0316@naver.com
'카르멜디자인' 채널 추가

선한사업 / 선한기업
엘타임
선한사업
디모데전서 6:17~19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기업
잠언 16:8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 전문소방시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문의 : 033)761-0078
안전제일

삼성연합의원
환자의 영육을 돌보실 분
"함께 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마태복음 9장 35절)
병원을 주님께 드리며 재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적 존재로서 예수님의 제자되어
환자의 영육을 돌보실 분! — "함께 해요"
대상자
■ 목회직: 목사, 전도사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령의 열정으로 삼성초대교회와 선교동역하실 분
■ 전문직: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간병사 그 외 의료 전 분야에 걸쳐 환자 선교의 사명을 가진 분
삼성연합의원 · 삼성초대교회 | 문의 ☎ 010-8528-3217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믿음의 삶

‘깨뜨림의 학교’에서 절망을 통해 일어서는 완전한 회복

지난 5개월 동안 나는 ‘깨어짐의 학교’인 복음사관학교(GNA)에서 훈련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뒷받침된 깨어짐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나눴다. 무엇이든 나눠도 용납될 수 있는 소그룹 안에서 나는 병든 자아의 인식과 모습들을 거리낌 없이 나눴다. 잠시는 부끄러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깨뜨림은 반드시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돌아왔다.

복음스터디 시간에 주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영화 ‘오버커머’의 주인공 같이 외도하고 나에게 무관심하며 이기적이었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었다. 그런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일하여 주셨다. 나 역시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무능한 나, 어떤 일에든 자아추구하는 죄인’이라는 깨어진 마음, 그런 절망을 허락하셨다.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사형선고였다.

일러스트=고은선

주님은 복음의 진리를 들을수록 나의 더 깊은 존재적 죄인의 실상, 음란한 ‘존재’라는 것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보게 하셨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런 나의 옛 자아가 결코 결론이 될 수 없다는 확증을 더더욱 견고하게 해주셨다.

이후 주님은 선교사로의 부르심이 존재적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이 헌신의 주체가 누구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주님은 나의 존재를 굳게 붙잡고 있던 내면을 다루어 가셨다. 그건 열매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이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통해 내 인생에 맺혀질 열매는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해주셨다. 나는 이것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후 주님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마다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주셨다.

GNA에서 나는 결론적으로 ‘존재적’ 변화를 경험했다. 특히 내 삶의 주도권이 주님에게로 넘어가는 일을 경험했다. 훈련 후반부에 이 모든 것이 나로서는 불가능하며 그동안 내가 애썼던 모든 것은 자아를 강화하는 방향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의 완전한 무능력을 경험해야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다. 나는 매순간 이것을 경험하는 주 안에서 행복한 선교사임을 믿음으로 선포한다.

나는 이제 다음세대를 무엇보다 기도로 섬기는 마음으로 사역지로 돌아왔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그분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어디든 기도와 선교로 달려가는 나그네로, 군사로 나아갈 것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마라나타! [GNPNEWS]

최종완

복음의 소리 1670-3160

워크숍 지상중계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 전화(1670-3160)가 진행한 ‘신앙 상담 시에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주제로 열린 상담자 세미나(강사 권서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정신질환은 마음의 병인가?

+ 신앙 상담 시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3)

우리의 마음을 뇌기능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 뇌는 대략 1000억 개의 신경 세포가 연결되어 작동하면서 기능한다. 이때 하나의 신경 세포와 또 다른 신경 세포가 만나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우리 뇌에는 대략 100조 개 이상의 시냅스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신경 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은 주로 이 시냅스에서 신경전달물질들이 왔다갔다하면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이뤄진다. 신경전달물질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략 100여 개 이상이다. 이것이 균형을 잘 맞추고 있어야 우리는 보이는 걸 보고, 들리는 걸 듣고, 또한 제대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다. 아주 조금이라도 불균형이 생기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 등 모든 것들이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뇌 신경 시스템은 이렇듯 복잡하고 아주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신경 시스템과 정신질환이 관련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질환의 일종이다. 물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므로 이분법적으로 잘라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을 하는 것들이 복잡한 뇌 기능의 결과에 의해 조절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정신질환은 엄밀히 말하면 마음의 문제라기 보다는 뇌의 문제로 간주할 수 있다. 〈계속〉 [GNPNEWS]

부흥을 위하여

주민에 돈 꿔주고 식량 매입한 부부, 공개재판 받아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북한에서 주민들에게 돈을 꿔주고 식량을 싼 값에 사들인 돈주 부부가 공개재판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의 국경봉쇄에 따른 식량난 여파가 평양에까지 미치던 지난해 7월 초, 전국적으로 국가 식량 판매사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평양시 인민위원회는 국정 가격보다 비싸게 식량을 판매했다. 이에 평양시 락랑구역의 40대 후반의 한 부부는 돈이 없어 쌀을 사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몰래 돈을 꿔주고 구역 안의 여러 식량판매소에서 시장보다 싼값의 식량을 사들였다. 그러자 북한 당국은 2021년 9월 말 락랑구역 평양-원산버스 주차장 공터에서 이들 부부의 공개재판을 진행했다. 구역 안전부장은 이 부부를 향해 “나라가 군량미를 풀어 장마당 가격보다 싼 값에 쌀을 공급해주고 있는 것을 악용해 식량 농간질을 한 자들이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구역 안의 모든 군중이 정신을 차리고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매체는 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식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최고지도자의 ‘애민’을 선전한 북한 당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돈벌이한 40대 돈주 부부를 시범으로 내세워 식량 사재기 현상을 통제하려 했다고 전했다. 한편, 돈 없는 주민들은 국가가 무상으로 공급해주거나 국정 가격으로 아주 싸게 식량을 판매하지 않는 한 별달리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답답함을 호소했다. 결국 국가 식량 판매사업은 군량미 부족으로 1개월 만에 중단됐고 군량미 실태를 모르고 김정은이 6월에 내린 식량 판매사업에 대한 ‘특별명령서’는 한갓 종잇장에 불과하다며 애꿎은 돈주 부부만 비난을 받았다는 동정 섞인 말들이 흘러나왔다. 주민들은 “현실성 없는 당정책 때문에 무모한 희생자만 생기는 것 아니냐.”며 “이번 당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GNPNEWS]

▲ ‘특별명령서’를 들어 보이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출처: 데일리NK 캡처

“북한에 복음 들어가게 될 때 통일 이뤄질 것”

북한자유주간준비위원회·미국디펜스포럼·탈북민 단체가 지난달 25일 서울 양천구 소재 새터교회(담임 강철호 목사)에서 제19회 북한자유주간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단체 연합예배를 드렸다. 북한자유주간은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됐다.

말씀을 전한 강철호 목사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운동하는 것은 북한에서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웠고,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라며 통일을 위해 이 땅의 3만 5000명의 탈북민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 목사는 “(탈북민들이) 안주하여 남한에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며 “북한 땅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사가 우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목사는 이어 “우리가 통일을 이루지 못함은 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복음을 통해 생명을 걸고 통일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외친다. 복음이 북한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수잔 숄티 대표(미국디펜스포럼)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 제19회 북한자유주간의 주제는 북한 정권에서 비롯된 북한주민들의 노예적인 삶과 정치범수용소의 불법 운영을 멈추게 하고, 이러한 북한의 독재 정치가 끝나도록 모든 한국인과 우리가 나서 탈북자들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라며 “이번 북한자유주간을 통해 육로 또는 하늘 혹은 바다를 통해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고,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을 끝낼 수 있는 데 힘이 되는 일을 하길 원한다.”고 했다. [GNPNEWS]

뷰즈 인 시네마
Views in Cinema 프로페서 앤 매드맨 (The Professor and the Madman)

옥스퍼드 사전을 통해 발견되는 은혜

드라마 | 미국 | P.B. 셰므란 | 124분 | 15세 관람가 | 2021

19세기 유럽의 섬나라, 영국이 식민지 개척과 함께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면서 영어 사전이 필요했다. 옥스퍼드의 내로라하는 교수들도 주저하고 있을 때, 교사였던 언어천재 제임스 머리가 옥스퍼드 사전 편찬을 맡게 됐다. 그러나 많은 작업량과 물리적 시간적 한계, 그리고 제도권 엘리트 출신이 아니라는 그에 대한 학자들의 불편한 시선은 그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때 받게 된 한 장의 편지로 사전 편찬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머리 박사는 편지 발신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조력자가 갇힌 정신병원으로 간다.

사전 제작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만큼 방대한 분량의 편지를 보내 머리 박사의 은인이 된 그는, 사람을 살인하고 정신병동에 갇힌 조현병을 앓는 의사였다. 영화 초반 급박하게 진전된 추격 신과 한 남자의 죽음, 그리고 이어진 재판, 곧 갇히게 된 남자의 이야기는 이 남자를 보여주기 위한 전개였다.

이 사람은 예일대학 출신 외과의 윌리엄 마이너 박사. 마이너 박사는 전쟁에 군의관으로 복역하며 탈영하려던 자신의 병사에게 낙인을 찍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이후 정상적인 삶의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사람의 신체를 자르고 붙이는 물리적인 의학 행위를 통해 사람을 고치는 외과의라는 점이다. 그에게 신체에 낙인을 찍는 것 정도는 사실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닐텐데 그는 낙인을 찍는 단 한 번의 행위를 통해 전혀 다른 사람, 즉 다른 인격으로 바뀌게 된다. 아무리 칼을 들고 배를 가르는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그의 인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원치 않는 자에게 징벌로 신체에 낙인을 찍는 행위는 그의 인격을 파괴시켰다. 그 뒤로 그는 자신이 낙인을 찍은 군인에게 끊임없이 쫓겨 다닌다. 물론 이것은 현실이 아닌 그의 망상이다. 또한 그 일을 행한 자신에게 벌을 주는 끔찍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결국 병적 강박에 가까운 이 망상으로 그는 아무 상관 없는 한 가정의 가장을 살해하게 된다. 하지만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정상 참작으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됐다.

끔찍한 살인의 주인공, 한 가정을 무너뜨린 죄까지 추가한 그는 자신의 죄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자신이 만든 마음의 감옥 안에 갇히고 만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낙인 찍은 군인과 자신이 실수로 죽인 남자와 한 방에 놓여 웅크리고 있는 장면은 죄의 노예가 되어 아무도 우리를 옭아매는 줄이 없어도 스스로 죄짐에 매이게 된 죄인을 보여주는 명장면이었다. 또한 자신이 죽인 가장의 미망인과 인간적인 교류를 넘어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되자 그는 죄책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신을 파괴하며 자해하고 스스로를 놓아버리게 된다.

영화는 말미에 은혜를 보여준다. 자신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놓아버린 그를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 방문해, 사랑의 감정 자체가 결코 스스로를 파괴할 죄가 아니라고 위로한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영국을 떠나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 치료받게 된다.

영화가 끝나고 주인공에 대한 실제 사실을 추적해 보았다. 그는 선교사의 자녀로 선교지에서 태어나 좋은 기독교 가정 안에서 양육되어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복음을 가진 선교사의 자녀가 이런 죄책감에 시달려 정신병에 시달리고 자신을 해치는 데까지 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죄에 대한 자각만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죄를 지으면서도 감각이 없는 세대, 양심에 화인 맞아 비틀어지고 왜곡된 세대 가운데, 죄를 이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심령을 가진 자가 있었다는 것이 내 양심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미 고인이 됐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그가 얻었기를 잠시 기도하게 되었다.

죄에 대해서 이토록 진지한 심령을 가진 자라도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는 사전 편찬을 도울 때, 자신이 빛을 쫓아가는 동안 고통받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물론 영화에서는 사전 편찬을 돕는 일을 말했지만, 정확하게는 죄책감을 완전히 떠났던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대로 쓰임 받았던 그때 그에게 빛이 있었다는 말로 이해가 됐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그 죗값을 갚아보려는 눈물겨운 헌신과 노력이 아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에겐 빛이 필요하다. 빛을 쫓을 때 우리는 죄를 갚으려는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거하게 된다. [GNPNEWS]

최현정 선교사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10대 청소년, 우울증·공황장애 겪어… 하나님 빠진 삶 때문에 혼돈

몇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의 삶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숙제, 친구 사귀기, 목욕하기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온라인 세계에서 도사리는 위험부터 트랜스젠더 성적취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문제가 본질적으로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에 부모가 자녀와 함께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자녀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CBN 뉴스에 따르면, 포커스 온 더 페밀리(Focus on the family)의 대니 후에르타 박사는 "진료를 통해 만난 많은 아이가 불안,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고 있었고, 학기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도 많은 상담사의 대기가 긴 상황"이라며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영적인 고민 없이 이러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을 없애면 혼란이 생긴다."며 "상담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성별을 결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보는 일은 너무 괴롭다."고 말했다.

후에르타 박사는 부모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알고 자녀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가치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후에르타 박사는 또 "아이의 말을 들은 뒤 개입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아이는 주변에서 어떤 말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아이의 세계관은 어떠한가?"라며 "이것을 파악한 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성경 진리에서부터 시작하라.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아이와 열린 대화를 나누라."고 권했다.

셀러브레이트 키즈(Celebrate Kids)의 설립자 캐시 코흐 박사도 가족 모두가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권능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당신도 알다시피 그들은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며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고 말했다.

출처: Zhivko Minkov on Unsplash

또한 기술이 끼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기도가 필요하다. 상식 미디어(Common Sense Media)의 연구에 따르면 10대의 거의 62%가 하루에 4시간 이상 디지털 화면에 노출된다. 그리고 10대 중 56%는 핸드폰이 없으면 외롭고, 속상하고,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후에르타 박사는 부모가 자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잘 알고 자녀가 길을 잘 찾을 수 있게 부모가 보호자의 역할을 진지하게 감당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찾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많이 있다."며 "컴퓨터와 전자기기에 보호 장치를 깔고, 식사 시간, 취침 시간, 이동 시간을 포함해 컴퓨터나 핸드폰 등을 사용하는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과 왜 제한을 두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고 부모가 먼저 전자기기 사용에 모범을 보이라."고 말했다.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2. 9. 3 ~ 9. 28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강종채 권순효 권태선 김다경 김선례 김선희 김수미 김숙자 김신애 김애심 김형숙 김혜신 노미자 류영열 박민숙 박성규 박승범 신혜경 안민자 예지선 오성애 오영환 우 석 윤미자 이은주 이장원 이주선 장근혜 정금자 정영배 조명숙 차상복 차인순 최근희 최임주 최정숙 하은숙 홍고집 무명

교회 및 단체 게르교회 고현교회 김화제일교회 대구서현교회교정팀 목자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가득한교회 새순교회 샘물교회 쉼 안양그루터기교회 시흥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예스교육연구소 열매교회 오예그교회 은혜신일교회 주소망교회 참좋았더라교회 처음사랑교회 함안순복음교회 헤브론원형학교 헵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